

동맥류성 골낭으로 나왔으며, 술후 1개월째 특별한 후유증 없이 추적 관찰 중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조은형 · 정응윤 · 박정수

8

후두결핵에 대한 임상적 고찰

원자력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최진호 ·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1960년대 이후 범국가적 노력에 힘입어 결핵은 많이 감소하였다. 이에따라 후두결핵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후두암의 대표적 감별 진단으로서 후두결핵의 임상적 의의는 중요하다.

저자들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원자력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병리조직학적으로 후두결핵으로 진단받은 33례에 대한 임상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26례, 여자 7례로 남녀비는 3.7:1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2례(36%)로 가장 많았고 30대 7례(21%), 50대 6례(18%) 순이었다. 환자의 주소는 대개 두가지 이상의 증세가 중첩되어 여성이 24례(72%)로 가장 많았고 인후통 15례(45%), 객담 배출 14례(42%), 연하통 12례(36%), 기침 8례(24%) 순이었다. 병변 부위는 대개 다발성으로 성대에 17(51%)례로 가장 많았고 후두개 12례(36%), 피열 연골 7례(21%), 가성대 5례(15%) 순이었다. 31례(93%)에서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상 폐결핵 소견을 보였다. 4례(12%)에서 경부 림프절 종창이 동반되었다. 진단은 병리조직학적 소견에 의하였으며, 외래주적이 가능하였던 환자에서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다. 후두암과 동반된 환자는 없었다.

9

갑상선낭종의 OK-432 경화요법

갑상선낭종 치료로 과거에는 단순흡입술이나 수술에 의존했으나 근래에는 낭종핵 흡입후 tetracycline 제제나 ethanol을 주입하는 경화요법이 소개되고 있다. Tetracycline 제제는 현재 효과면에서 다소간의 이견이 있어 최근에는 tetracycline 제제보다는 ethanol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Ethanol이 효과면에서 우수하기는 하나 주입시 심한 통증, 혈종, ethanol 유출로 인한 조직유착, 술에 취한 것 같은 상태에 빠진다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정상조직의 주입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초음파 유도하에 시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 경화요법시 정상조직으로 주입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이 적고 초음파유도 없이도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경화제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목 적: 저자들은 면역증강제로 개발된 OK-432를 갑상선낭종의 경화요법으로 도입하여 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1월부터 1995년 12월말까지 초음파검사상 순수낭종이거나 혼합낭종중 초음파검사상 낭성부분이 대부분(90%이상)을 차지하는 낭성우위혼합낭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환자는 48례(7례는 순수낭종, 41례는 낭성우위혼합낭종)였는데 남자가 6례, 여자가 42례이었고, 평균연령은 39세(17~87) 이었다. 경화요법은 낭종액을 19G~21G 주사침으로 흡입해 내고 그 주사침을 통해 OK-432용액(0.2mg OK-432를 2cc 생리식염수에 용해시킨 용액)를 흡입해낸 낭종액의 1/10~1/5 용적만큼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번 흡입낭종액은 세포병리검사를 하였으며, 효과관정은 4~6주후에 초음파검사로 하였고 잔류낭종이 있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였다. 경화요법은 개인에 따라 1~5회(평균 2.0회) 시행하였으며, 평균 추적 기간은 0개월(8~32개월)이었다.

결 과: 초진시 낭종의 평균직경은 4.2cm(1.0~12.0cm)이었는데 추적기간중 48례 전례에서 낭종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잔류낭종의 크기에 따라 시술효과를 크게 3가지를 분류했을 때 잔류결절의 직경이 0.5cm 이하로 된 예가 32례(66.7%), 0.5~1.0cm사이 12례(25%), 1.0cm이상 4례(8.3%)로 분류되어 44례(91.7%)에서